

나상호 MVP·득점왕·베스트11 휩쓸다

2018프로축구 K리그2 시상식

지난해 2골...올해는 16골 쏘며 득점왕 차지 “한국축구 발전 기여할 수 있는 선수 되겠다”

‘나상호의 날’이었다. 광주FC 나상호(22)는 3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2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올 시즌 31경기에서 16골을 넣고 1도움을 기록한 나상호는 황인범(대전), 호블로(부산), 민상기(아산) 등 유력 후보들을 제치고 MVP 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베스트11 공격수 부문과 득점왕을 받아 3관왕에 오른 그는 “올 한해는 축구를 시작하면서 꿈꿨던 많은 일이 이뤄졌던 한 해가 됐다”며 “MVP 수상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분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나상호는 수상 소감에서 아버지와 가족, 소속팀인 광주FC,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에서 1번으로 묵묵히 지켜주신 아버지와 매 경기 찾아와주는 가족들, 그리고 광주 구단 모든 분과 감독님, 코치님, 스태프 그리고 동료들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팬에게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는 많은 목표를 이뤘고 MVP 수상도 하게 됐지만 이상으로 인해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되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한국축구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프로 데뷔 2년차에 K리그2를 빛낸 선수로 우뚝 선 나상호는 금호고와 단국대 시절, 고교부와 대학부를 휘어잡았다. 일찌감치 광주FC 입단이 예정됐지만 단국대의 요청에 프로 데뷔를 연기하고 대학으로 진학, 2년간 대학무대에서 활약한 뒤 지난해 프로에 뛰어들었다.

그는 고교부와 대학부 시절 공격력 킹 상위권을 주름잡았던 만큼 프로에서의 기대도 컸고 광주의 킬레이어로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녹록하지 않았다. 전지훈련지에서 부상에 발목을 잡으면서 시즌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고 가까스로 후반기에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적응도 더뎠다. 나상호는 데뷔 첫해인 지난해 18경기 2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데뷔 2년차인 올해는 달랐다.

박진섭 감독 체제에서 득점력에 몰이 올랐고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했다. 만 22세의 나상호는 국내 선수 가운데 역대 K리그 최연소 득점왕의 영광도 안았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도 빛났다. 지난 여름에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돼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근에는 성인대표팀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한편, K리그2 베스트11에는 나상호, 키쭈와 함께 미드필더에 황인범, 호블로, 안현범(아산), 이명주(아산), 수비수에 김민환(부산), 서보민(성남), 윤영선(성남), 이한샘(아산), 골키퍼로는 김영광(서울E)이 선정됐다.

이번 시즌 도움 9개를 기록한 호블로는 도움왕까지 2관왕에 올랐고, 김영광은 전 경기 전 시간 출장 특별상도 받았다. 감독상은 아산 무궁화의 우승을 일군 박동혁 감독에게 돌아갔다.

K리그1에서는 말경(경남FC)이 MVP와 득점왕에 이어 베스트 11 공격수로 뽑혀 3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베스트 11 공격수로는 말경과 주니오(울산), 미드필더에 네게바, 최영준(이상 경남), 아갈라르(인천), 로페즈(전북), 수비수에 홍철(수원), 리차드(울산), 김민재, 이용(이상 전북)이 각각 베스트 11에 올랐다. 최고의 골키퍼 영예는 눈부신 선방쇼를 보여준 조원우(대구)에게 돌아갔다. 감독상은 최강희 감독이 받았다. /최진화 기자



3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스포츠과학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체육 관계자들이 센터의 체력측정 견학을 하고 있다.

맞춤형 훈련 지원 전남 스포츠과학센터 개소 3개월 시범운영후 출범 심리·체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전남도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과학 밀착 서비스가 본격 지원된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가 3일 전남도 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5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부터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운동부하, 운동역학, 근관절기능검사장비 등 총 29종의 측정장비를 구축했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이날 개소식을 기점으로 정식 운영, 전남도 선수들의 기초 체력과 종목별 전문체력을 측정해 처방하고 이에 따라 훈련 방법을 개선하도록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우수선수에게는 체력강화 프로그램과 경기 기술 분석 프로그램, 심리·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등 스포츠 과학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김태완 센터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분야 석·박사급 연구원과 행정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운동상해 예방 등을 위해 찾아가는 스포츠과학고교실도 병행한다. /최진화 기자

스포츠과학고교실에선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근력 및 근파워 트레이닝, 스포츠심리훈련, 체력의 중요성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개소식에서 “평범한 실력의 선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기까지는 선수 본인의 엄청난 노력 말고도 짜임새 있는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전남스포츠과학센터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종목 선수의 실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해왔던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운영하는 2018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사업은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해온 과학적·체계적 체력측정 및 트레이닝방법을 지역 학생, 일반 선수 및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회원으로 확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진화 기자

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선수권 한국 배드민턴 금 4개

한국 배드민턴이 2018 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선수권대회 5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지난 2일 광주 광주여자대학교 교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끝난 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선수권에서 남자복식, 여자복식, 남자단식, 혼합복식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복식 결승전에서는 최솔규(요넥스)-서승재(원광대)가 포리웨이-왕지린(대만)을 2-1(21-12 17-21 21-18)로 꺾고 우승을 거뒀다.

여자복식에서는 국가대표 ‘언니조’ 장예나-정경은(이상 김천시청)이 ‘동생조’ 이소희(인천국제공항)-신승찬(삼성전기)을 2-0(21-14 21-17)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단식은 손완호(인천국제공항), 혼합복식은 고성현(김천시청)-엄혜원(MG새마을금고)이 우승했다. /연합뉴스



중흥무진 손흥민 토트넘 손흥민이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아스널 홈 룰딩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토트넘은 2-4로 패했고 손흥민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AP=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 김은래 사무처장 취임

전남장애인선수 출신 첫 민간인 사무처장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김은래 신임 사무처장(55)이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말 열린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47차 이사회에서 공개 채용 과정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장을 받았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첫 민간인 사무처장이다.

김 처장은 2008-2009년과 2018년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좌식배구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춰 나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김 처장은 “체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장애인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김은래 사무처장

안치홍·김선빈·최형우 황금장갑 누가 낄까

KBO 골든글러브 후보 발표...KIA 11명 후보

포지션별 최고 선수 10명 10일 시상식서 공개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 5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다. 양현종, 안치홍, 김선빈, 최형우, 버나디나, 5명이 황금장갑을 품었다. 올해도 KIA는 전년도 수상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후보 명단에 포함돼 오는 10일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몇명이나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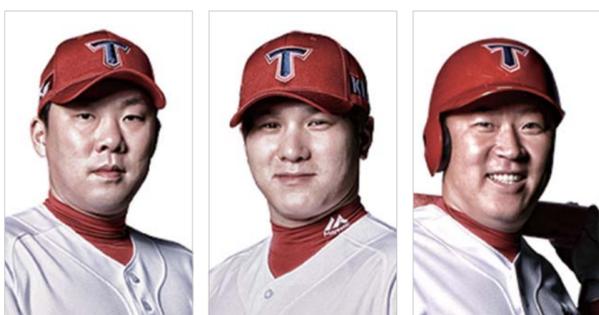
KBO는 3일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후보 9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폭넓은 후보 선별을 위해 해당 포지션의 수비수(지명타자는

지명타자 타석 수)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한 지난해 85명보다 12명이 늘어 역대 최다 후보 수를 기록했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는 투수의 경우 규정인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이상,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후보로 선정된다.

포수와 야수 해당 포지션에서 720 이닝(팀 경기수×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⅔인 297 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



서야만 후보에 올 수 있다. 단,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KIA는 8개 부문 모두 후보를 배출했다. 양현종과 허덕(투수)을 비롯해 김민식(포수), 김주찬(1루수), 안치홍(2루수), 이병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버나디나·이명기·최형우(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진화 기자

아시아최강 사이클 여자 단체추발 월드컵 6위

AG멤버 김유리·김현지·나아름·이주미 출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사이클 여자 단체추발이 국제사이클연맹(UCI) 월드컵 대회에서 6위에 올랐다.

여자 단체추발 대표팀은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끝난 2018-2019 UCI 트랙 사이클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5개 팀 중 6위를 차지했다.

여자 단체추발 금·은·동메달은 영국, 호주, 캐나다가 차지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중국은 10위, 일본은 15위를 거뒀다.

이 대회는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이달 초 2019년도 국가대표를 새로 선발하고 출전한 첫 국제대회로,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트가 걸려

있다. 대표팀은 임채빈, 손제용 등 일부 단거리 간판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정에 선수와 신예 선수로 새 팀을 꾸렸다.

여자 단체추발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김유리, 김현지, 나아름, 이주미가 그대로 출전했다.

신동인, 민경호, 박건우, 임재연이 출전한 남자 단체추발은 10위를 차지했다.

여자 단거리 간판이혜진은 경륜에서 8위, 스프린트에서 20위를 거뒀고, 김수현과 짝을 이뤄 출전한 여자 단체스프린트에서는 11위에 올랐다.

대표팀은 영국 런던으로 이동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UCI 월드컵 4차 대회에 참가한다. /연합뉴스